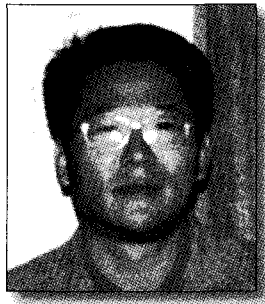


가을철 숫사슴관리

- 철저한 관리가 녹용 생산력 증대 및 번식률 향상으로 이어져 -



유 일 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목적 : 숫사슴의 계절적 스트레스 감소 및 안전대책 마련으로 투쟁방지 및 투쟁에 의한 숫사슴의 부상방지, 체중감소 방지를 통한 녹용생산 증대 및 경영합리화에 의한 소득증대가 가을철 숫사슴 관리의 목적이다.

요령

1. 숫사슴간의 투쟁 및 그로 인한 부상방지 요령

- 만 2세까지는 집단사육이 가능하나 사료조와 운동장이 충분히 넓어야 효과적이다.
- 독방사육 : 9월부터 다음해 낙각전까지. 1두당 최소면적은 4m×6m이며 배수구조가 양호해야 한다. 엘크나 레드디어

에 적합하다. 관리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축사는 파이프나 벽돌로 지어야 한다.

- 나이, 체중, 성격 등을 고려한 소집단 사육 : 중규모의 목장에 적용이 추천되는 사육형태이다.

- 공격 방지틀을 설치한 후 집단사육 : 운동장에 파이프로 엘크 80cm, 레드 60cm, 꽃사슴 50cm 높이로 먹이통과 직각방향으로 설치. 허약한 사슴은 처음부터 집단사육무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꽃사슴 사육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육 방법이다.

- 사육의 교차배정 : 성록과 자록, 육성록을 순서대로 반복 사육하는 방법으로 축사과손은 감소되나 힘이 열세인 자록이나 육성록에 스트레스가 가해진다.

2. 숫사슴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령

- 울음 방지기 장착 : 비용이 저렴하고 동일 사육장이나 인근에 사육중인 사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녹용생산 증대효과가 크며 도시근교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만 정교한 장착이 되지 않으면 먹이 섭취와 되새김질시 문제가 발생하며 육창 발생 가능성이 있다.

- 성대제거 : 수술로 영구적으로 울음소리를 제거할 수 있으나 회복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 종이 제거 : 수술로 고막을 제거하는 방법은 사슴에서 고도의 수술기술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고막제거 대신 소리 전달의 통로인 종이를 수술로 제거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고능력의 숫사슴에서 장려된다. 녹용생산 증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동물학대라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

- 사슴장의 격변화 : 동일 사육장내에서 사육되는 숫사슴이 서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나 비용 및 효율면에서 권장되지는 않는다.

3. 영양관리에 의한 체력 강화

비타민과 미네랄(광물질) : 냄새나 맛으로 인해 섭취거부가 발생되므로 초기에는 극소량씩 급여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증량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다.

녹용 생산량 증대에 효과가 크다. 발굽 질병 예방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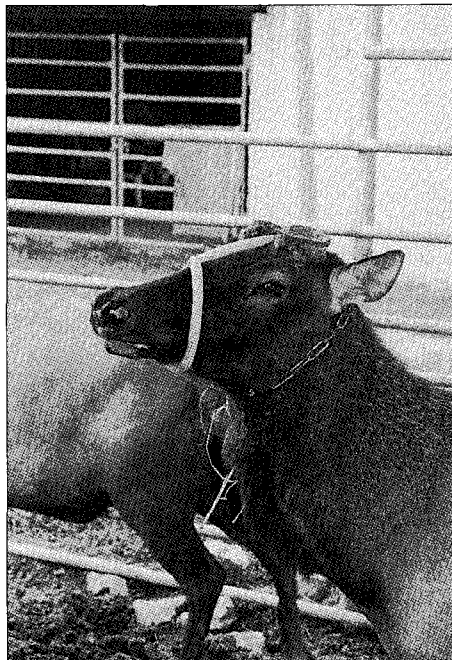
유산균 : 섭취 및 기호도가 양호하다.

기후급변 및 환경 급변시의 적응력을 높여주므로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며 미생물 우점 효과로 인해 자육, 육성육의 질병 발생 및 발굽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기호성 증대를 위하여 설탕을 급여하는 방법도 있다.

4. 발굽질병

유해물체의 제거와 사슴장의 건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발정기 이전에 과잉

성장된 발굽, 비대칭 발굽, 이전에 발생된 발굽질병에 의한 발굽 변형은 삭제와 교정에 의해 개선되어야 한다. 발굽질병에 걸렸던 발굽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속적인 관



▲ 울음방지기를 장착한 엘크 숫컷 모습.



▲ 부제병이 심해 양발굽이 빠져버린 사슴.

찰이 요구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발굽질병은 장기간의 치료와 인내를 가진 관리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치료가 완치여부를 결정하므로 약물 침지시설이 요구되며 사용되는 약품은 항생제, 유산동, 과망간산카리, 소독제가 있다. 심각한 부제병은 정교한 우든블록(나무발굽) 장착이 필수적이다. 발굽 8개 중 3개 이상이 극심한 부제병인 경우에는 도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5. 사육장에 통나무 박아주기

스트레스 해소 및 사슴장 파손의 감소를 목적으로 지름 30cm 이상의 밤나무, 참나무, 아카시아나무를 운동장에 박아준다.

6. 재생뿔의 철저한 제거

동거중인 다른 사슴에게 극심한 상처나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으므로 재생뿔이 녹각화된 것은 철저히 제거해야만 한다. 사육장 파손을 줄이는 효과도 있으나 허약한 사슴은 재생뿔을 무기 삼아 채식과 체력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약한 사슴이나 질병이 있는 사슴의 재생뿔 제거는

권장되지 않는다.

7. 기타

신축 사육장은 급수배관을 지하에 배설하여 동파방지를 도모하고 신선한 물이 공급되도록 한다. 번식철의 숫사슴은 보이는 사람 및 짐승은 모두 연적으로 판단하여 공격을 하므로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야 한다.

8. 종록의 선택기준

나이 : 만 3세 이상, 건강도, 녹용생산량, 녹용모양을 절대평가 기준으로 삼아 선정한다. 건강하지 못한 사슴을 종록으로 사용하면 폐사 확률이 급상승한다. 압수 비율은 숫사슴나이×1.5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

9. 암사슴 관리

자육분리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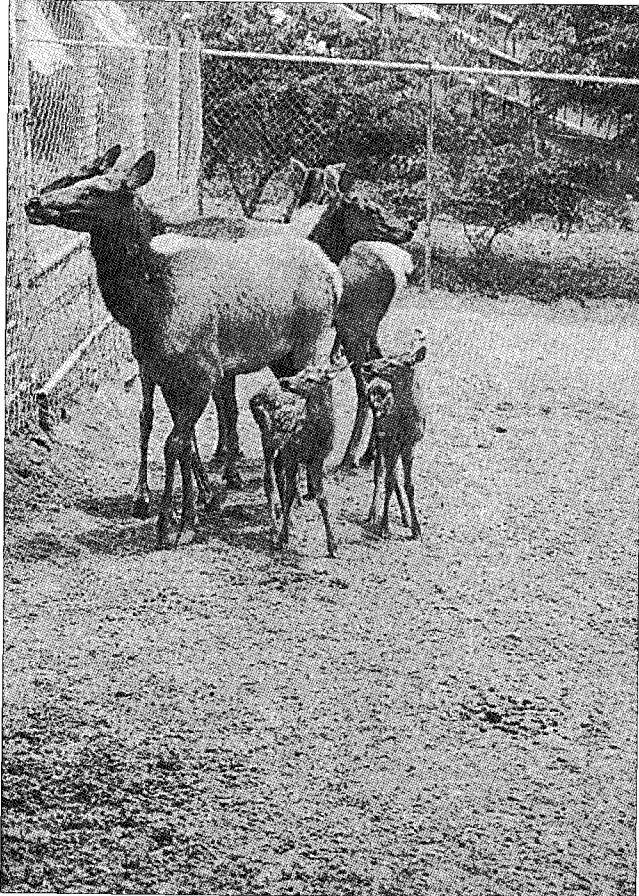
8월25일 전후

최소한의 포유기간 : 분만후 55일

과잉 비육된 어미사슴이 아닌 한 10월까지의 무제한 급여가 이상적이며 11월~이듬해 3월까지는 약간 마른 듯 싶게 몸매조절이 필요하다.

4월말부터 곡물사료(배합사료) 양을 충분히 공급한다. 비타민, 무기물, 광물질 급여가 필수적이다.

금년도에 공태 또는 난산, 후산 정체된 사슴은 수의사에게 임신가능 여부를 진단 받은 후 도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배시기는 11월 말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늦은 분만은 자육의 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금년도에 늦은 분만을 한 암사슴은 교배 여부를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한다. 초임의 암사슴은 과잉 비육되지 않는 수준까지 곡물사료를 지속적으로 급여해야 한다. 암사슴이 과잉 비육되면 난



▲ 자육은 8월 25일 전후로 어미사슴과 분리하는 것이 좋다.

산 및 불임률이 매우 높아 지므로 과감한 체중조절이 필수적이다.

10. 자육관리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곡물사료와 양질의 건초가 무제한 제공되어야 한다.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의 급여가 요구된다. 성장이 저조하면 숫사슴은 녹용 생산이 급감

하고 암사슴의 경우 공태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자육은 암수로 구분하며 집단 사육이 권장된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허약한 사슴은 별도로 사육되어야 하며 설사 방지에 힘써야 하며 철저한 구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사 질환이 있는 사슴은 장기간 양질의 건초로 사육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국양육**

〈필자 연락처 : 011-423-5297〉